



조재윤

# 존재감 甲...나는 조연이다



김상호

김상호·조달환·조재윤·라미란 등 명품연기로 활약 두드러져

“너무 잦은 출연 식상” “검증된 연기력 탁월” 상반된 의견

스크린에서 명품 조연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탄탄한 연기력과 개성 강한 연기로 주연 못지 않은 존재감을 뽐내며 관객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영화 ‘보통사람’의 김상호와 조달환이 대표적이다. 코믹 감초 연기가 주특기인 두 배우지만, 이 영화에서는 웃음을 뺀 정통연기를 선보였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보통사람’에서 김상호는 정치공작에 희생되는 기자로 나온다.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는 그의 모습은 목격한 장상을 남겼다.

조달환은 기획사로서 억울하게 연쇄살인범으로 몰리는 대성역을 맡아 ‘인생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눌한 말투로 황실수술하는 그에게 경찰은 강제로 범행을 거짓으로 자백하게 한다. 조사실 안에서 겁에 질린 그가 허겁지겁 자장면을 먹으며 흘리는 눈물은 관객의 목까지 메게 한다. 이 작품을 위해 8kg을 감량한 조달환은 “촬영 중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보이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충무로에서 이미 많은 러브콜을 받는 배우다.

김상호는 지난해 12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에서 주인공 수현(김윤석) 곁을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로, 지난해 ‘조작된 도시’에서는 교도소를 통제하는 권력자 마덕수로 나와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현재 상영 중인 ‘보통사람’까지 포함하면 4개월 동안 3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조달환은 다음 달 6일 개봉하는 ‘원스텝’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등장에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조재윤은 스크린과 TV를 중형무진 누비고 있다. 지금 극장가에는 그가 출연한 영화 2편이 걸려있다. ‘비정규직 특수요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국가안보국 차장 역할을 맡아 코믹 연기를 선보였고, ‘프리즌’에서는 교도소의 제왕 익호(한석규)의 행동대장으로 출연해 악역으로 변신했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피고인’에서는 박정우(지성)의 조력자 신철석역을 맡았다.

이동휘도 올해 매달 새 영화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올해 1월 ‘공조’, 2월 ‘재심’에 이어 오는 29일에는 ‘원라인’으로 돌아온다.

다작(多作)으로 친다면 이경영을 따라올 만한 배우가 없다. ‘한국영화는 이경영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구분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작년 12월 ‘판도라’부터 올해 ‘여고사’, ‘중2라도 괜찮아’, ‘재심’, ‘프리즌’에 연달아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조연과 단역을 가리지 않는다.

‘목숨 건 연애’, ‘조작된 도시’의 오정세를 비롯해 ‘아수라’, ‘그레, 가족’, ‘보통사람’의 정만식 그리고 ‘보통사람’, ‘특별시민’의 라미란 등도 충무로에서 가장 바쁜 배우들로 꼽힌다.

이들 배우는 매년 탈바꿈을 시도하며 영화를 빛내고 있다. 다만, 너무 잦은 출연은 친숙함을 넘어 관객들에게 식상함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배우들에게 러브콜이 줄리는 것은 수요일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다.

대형 배급사 관계자는 “한국영화가 연간 300편이 넘게 개봉하지만, 감독들이 찾는 연기력이 검증된 조연급은 이미 밀려나고 있는 배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여러 영화에 겹치기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엔 악역 아닌 경찰 됐어요”

임수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연

배우 임수향(27)이 KBS 1TV 일일극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을 맡는다.

임수향이 오는 5월 시작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 ‘무궁화’ 역을 맡는다고 소속사 한양E&M이 27일 밝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사별한 남편 대신 경찰이 된 무궁화가 피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수향은 “주체적이면서도 시련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무궁화의 강단있는 모습에 빨려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상대역으로는 도지안이 출연한다.

임수향은 지난해 KBS 2TV ‘아이가 다섯’에 이어 MBC TV ‘불어라 미풍아’로 잇따라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 “우리사이 소문 다 났어요”



배우 윤현민·백진희 열애 인정

배우 윤현민(32)과 백진희(27)가 열애 중이다.

백진희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27일 “두 사람이 지난해 ‘내 딸 금사월’을 끝낸 4월부터 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민과 백진희는 2015년 9월부터 6개월여 MBC TV ‘내 딸 금사월’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췄다. 당시 열애설이 나기도 했지만 양측은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에서 이들의 데이트 사진을 찍어 공개하자 양측은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윤현민은 지난 25일 시작한 OCN ‘터널’에 출연하고 있으며, 최근 MBC TV ‘미성년인’을 끝낸 백진희는 현재 일본에서 화보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0 201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류현진 출전 시카고 화이트삭스·LA다저스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3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25 1대 100(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코리아 지오그래피 플러스(재)	25 영상앨범 산(재) 55 감성애니 하루 시즌2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15 KBS대기획 요리인류 -도시의 맛(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3	10 특집 2부작 <동서공감! 교육 4.0 시대에 대비하라>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송가소나타 2	
4	00 4시 뉴스집중 50 제19대 대선 정당정책연설 -국민의당	00 여유만만(재)	1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50 19대 대선 정당정책 방송연설 <터불어민주당>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정신 이슈	50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귀족말>
11	00 KBS 뉴스라인 40 천상의 컬렉션(재)	10 허수집 딸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5 KBS특별기획 2부작 초원의 제국(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금쪽같은 내 새끼(재)	15:20 우주탐험가 챗	20:50 세계테마기행 <달콤한 원표, 북마리아나 제도 -차모로족의 섬, 티니안>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네상스 르네일 습지>	10:30 한국기행(재)	15:35 모피와 친구들 -차모로족의 섬, 티니안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장조림과 달래 숙것무침>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나를 전쟁 2부 -일본 만에 볼>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두다다다	21:50 EBS 다큐프라임 <달의 기적 2부 -달을 노래하다>
07:00 레이디 비그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땀땀 땀땀 1~2(재)	
07:30 로보카 폴리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7:15 열마 개투리	
07:45 총동! 슈퍼윙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땀땀 땀땀 1~2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책대로 한대(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8:30 꼬마버스 타요	13:40 레이디비그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2:45 글로벌 애착 찾아 삼만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장수의 비밀(재)	19:00 너티너츠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레이디비그	19:30 EBS뉴스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55 극한직업 <어묵 공장>	24:30 한국영화특선 <서편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5 내 친구 아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8일(음 3월 1일 甲寅)

<b>子</b>	48년생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60년생 현대에 뒤떨어진다던 그 즉시 후회만 한다. 72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의 확보도 가능하다. 84년생 경제성까지 따져 보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5, 44	<b>午</b>	42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다. 54년생 두루 살펴보자. 66년생 총체적인 점검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도량이다. 78년생 추구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90년생 생방이 상호적이야하면 오래 지속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87
<b>丑</b>	49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61년생 난제를 잘 숙해야만 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73년생 미련은 모두 버리고 확고한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0	<b>未</b>	43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55년생 뜻밖이어서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다. 67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방심하면 안 된다. 79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다는 바램이 있다. 91년생 긴박한 동세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9, 69
<b>寅</b>	50년생 마음먹은 바가 뜻과 같이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니 내실 있게 진행되리라. 62년생 중요한 일들이 겹쳐서 분주해지겠다. 74년생 즉시 이루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86년생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05	<b>申</b>	44년생 판도를 쉽게만 본다면 많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게 된다. 56년생 규칙적이야하면 현상을 감당하게 된다. 68년생 낯겨 책정하는 것이 순탄함을 유도하게 되리라. 80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60, 85
<b>卯</b>	51년생 신중히 진력한다면 성과는 예상했던 바보다 크다. 63년생 요령껏 이행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었다. 75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87년생 부분적인 곳에 집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4, 86	<b>酉</b>	45년생 능부자 경직하는 심정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 57년생 더불어서 행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9년생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할 국제이니라. 81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28, 02
<b>辰</b>	52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64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까다로운 정황을 유연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상당한 충격 속에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니라. 88년생 끈기를 잡으려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7, 81	<b>戌</b>	46년생 강구한다면 능히 방책을 찾게 되리라. 58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70년생 평시에 우산을 준비해 뒤편에 대비할 수 있다. 82년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62, 84
<b>巳</b>	53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될 것이니라. 65년생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별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77년생 진중만 태도로써 초지일관 한다면 성사되리라. 89년생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얻게 되는 미담이다. 행운의 숫자 : 11, 74	<b>亥</b>	47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다. 59년생 적당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71년생 내일 벌어질 구도까지 감안한 후에 결정을 하라. 83년생 비탕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한계 정황에 봉착한다. 행운의 숫자 : 38,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